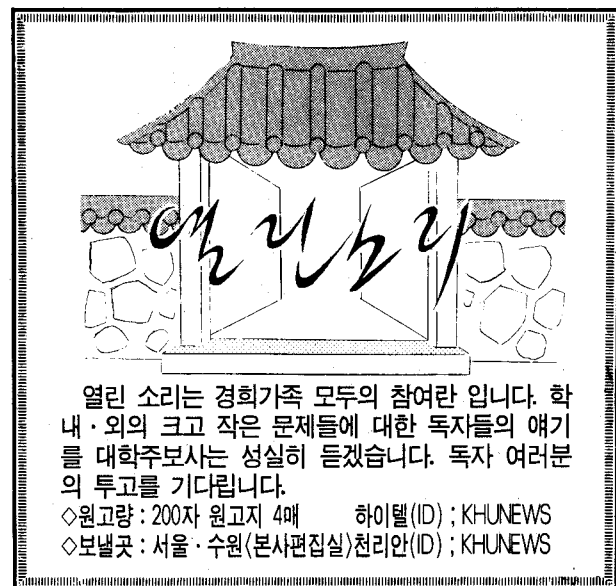




학구적 자세로 대학문화 정착해야

새내기라 불리며 선배들에게 사랑만 받던 내가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에게 사랑을 베풀어 아라는 위치에 섰다.

입시교육이라는 제도적 모순 속에서 대학이라는 자유의 터는 나에게 너무 과격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그때는 신선한 충격에 정신을 잃어 술문화 등의 방탕문화가 자유라고 착각하였고 학생 본연의 임무인 공부마저 저버렸었다. 그러했던 나의 모습들이 선배의 자리에서 지금 왜이리도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교육제도·사회관념의 모순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될 이러한 후회를 나의 사랑하는 후배들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선 자신의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장학생이 되겠다는 작은 목표도 좋다. 자신의 목표설정은 자신의 생활이 자칫 방탕함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목표를 향한 매진 또한 필요하다. 목표설정만 있을뿐 그를 향한 매진이 없다면 목표존립 자체가 위협하다.

마지막으로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즐겁다는 것은 방탕한 술문화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자유로움을 온몸으로 영위한다는 것이다.

위의 모든것을 새내기때 실천한다면 선배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따뜻한 조언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선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병 훈

(자연대 물리과 2)

졸업식 큰돌핀 학내 주차난 심각

꽃다발, 학사모, 카메라들이 보이는 가운데 지난 24일 우리 학교는 각 단대별로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방학중이라 텅빈 교정내에 모처럼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조금은 들뜬 분위기 속에 졸업

생과 학부모들은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졸업생들은 정든 학교를 떠나는데 아쉬웠는지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렇게 졸업식은 선배들의 아쉬움과 후배들의 축하에서 잘 치러졌다.

그러나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졸업식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졸업식에 참석하려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차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학교에 차들이 너무 많았다. 계속되는 차의 행렬들이 마치 개미줄을 연상케 했다. 평상시에도 주차할 곳이 별로 없는 학교에 많은 차들이 서로 주차하려고 해서 너무 복잡했다. 주차금지라는 표지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중앙도서관 옆에도 버젓이 차들이 세워져 있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녀야 할 좁은 길에도 차가 있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선배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우리 후배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었을텐데, 어쨌든 기쁜 졸업식에 작은 오점을 남긴 주차문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내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생, 교직원, 교수님들께서도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해서서 주차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김 주 승

(문리대 생물 3)

선배배간의 단합 과다한 O.T비용

졸업생들이 떠나고 난 빈 자리를 신입생들이 들어와 채우고 있다. 입시의 중앙감으로부터 벗어난 새내기들은 새롭기만 한 곳에서 시작의 설렘으로 한창 들떠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입학전부터 새내기들을 위한 행사들을 마련해 왔다. 나는 그중에서 '97새로배움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한다. 3박 4일동안 진행했던 새로배

움터는 앞으로 대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친구, 선배배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물론 그것을 주된 의의로 두고 진행되는 행사는 아니지만, 'O.T' 안 가면 친구 못 사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을 싹틔워 나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새로배움터에 대부분의 새내기들, 그리고 후배를 맞는 즐거움으로 가득차 있는 상급생들은 참가할지 원한다. 그러나 참가비가 너무 비싸 주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번 새로배움터의 경우, 한 사람당 6만5천원의 참가비를 지불해야 했더니,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액수인 것이다. 신입생의 경우, 입시때 부담했을 전형료며 입학금, 그 외에도 잡다하게 드는 돈이 많았을 텐데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은 O.T에 참가하기를 망설일 게 뻔하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구제조치가 마련되었는지, '등록금은 괜히 내냐?'는 식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부담비용이 절감되었는지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 현 철

(국문 2)

동아리 선택문제 신중히 고려해야

신입생들에게는 모든게 신기하고 낯설기만한 첫 대학생활이 시작되었다.

매년마다 이쯤이면 각 동아리에선 후배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또한 새내기들도 역시 대학 생활에서 학부생활보다는 동아리 생활에 훨씬 더 큰 기대를 할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학부는 대략 2백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도 잘 모른 채 지내기가 쉬우며,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정도 그리 끈끈하게 느끼지 못하는 반면, 동아리 사람들은 서로가 공유하는 한가지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그리고 더 옥더 친밀하게 서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하지만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쉽게 싫증을 내는 신세대들은 동아리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동아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지도 못한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너무도 쉽게 저버리는 성향이 뚜렷하다.

물론 여러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것도 좋은 일일수도 있으나 결국 자기 자신의 기억에 남고, 자기와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한 곳에서 함께 한 사람 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선배들도 무분별한 입회원의 남발 및 신입생의 선

발은 곧 그 동아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동아리내의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조건 신입생 끌어들이기 식의 무지하고 대책없는 경쟁보다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정갈 뜻이 있고 오래 생화를 할 수 있는 후배들을 잘 선발해서 뽑아야만 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입생들은 동아리의 원래 취지를 잘 알고, 신중히 선택하는 지성인다운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성 가 영

(물리 2)

쓰레기 분리수거 학내 활성화 우선

경희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우라면 한번 정도는 궁금하게 여겼으리라 생각된다. 1학년 초엔 캔이나 우유팩을 버릴 때 근처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있는지 들어오곤 했었다. 그러나 그런 설치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듯 했다.

대학은 학생에 의해 이끌어 지기도 하지만 학생을 이끌고 무 또한 지니고 있다.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가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전국민적인 캠페인이다. 이 문제야말로 학교가 적극 나서서 학생들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책임까지 완수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내기들이 들어올 것이다. 만약 그때의 나처럼 빈 우유팩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는 새내기들이 있다면 이번엔 그들 앞에 종이류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놓여 있을 기대해 본다.

이 준 호

(정경대 경영 2)

변질된 음주문화 자각이 필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주와 가무를 사랑해왔다. 이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요즘엔 졸업·입학 시즌을 맞이하여 음주가무를 즐길 기회가 더욱 많은 듯 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상당히 변색되었다.

해마다 이맘때쯤엔 사발식 도중에 과음으로 숨진 어느 학우에 관한 기사가 실리곤 한다. 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매년 터지는 것일까? 술과 노래를 좋아하고, 다함께 모여 흥겹게 어울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선배와 후배가 토크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술은 꼭 필요한 조미료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미료가 과하면 음식맛이 살아나지 않듯 지나친 음주는 오히려 선·후배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

물론 새로 맞이한 신입생들에게 한잔의 술이라도 더 권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풋풋한 새내기들이다. 여지껏 입시에 시달려온 그들이 술과 벗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술을 처음 마시는 학우들에게 무작정 술을 권하는 것을 후배사랑이라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자신들의 대학 경험을 기억하고 좀 더 신입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선조들이 음주가무를 즐겼다고는 하나 결코 술에 취해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다. 평상시엔 열심히 일하고 때때로 즐겁게 어울려서 지냈던 선조들의 모습, 그건 우리들도 지켜야 할 아름다운 음주문화가 아닐까 한다.

조 준 현

(경제 2)

잠깐 인터뷰

— 바둑 특기생 김명완군 (체대 체육1)

“제가 오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와서 너무 기쁘요. 바둑을 좋아해서 특기생으로 들어 왔지만 학교생활을 일반학생들과 다름없이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약간은 수줍은 목소리로 입학소감을 말한 김명완(체대 체육1)군은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아버지의 권유로 바둑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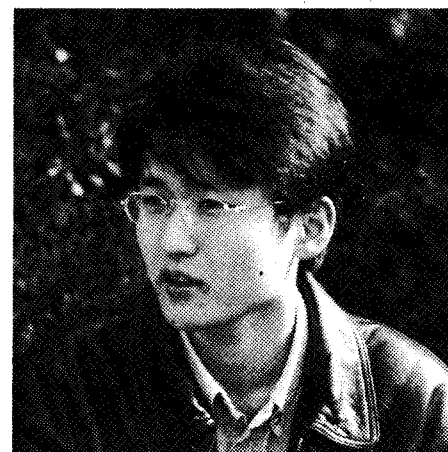
처음에는 재미로 바둑을 두다가 6학년때 프로기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김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서울에서 하숙을 했다. 고향이 부산인 김군은 고등학교때까지 타향살이를 하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매일 아침부터

바둑으로 경희 빛내고 싶어

밤늦게까지 바둑을 두면서 학교공부를 동시에 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경희인이 되어 뿌듯하다고 웃으며 말한다.

“승부에서 이길 때 그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짜릿해요. 바둑의 끝내기 부분에서 묘수를 두고 이길 때, 특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겼을 때 이것이 바둑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졌을 때는 무척 화가 나요.”

바둑이 마치 인생의 축소판 같다는 김군은 한 수, 한 수 뒤흔들며 자신의 인생을 바둑에 거는 것 같아 긴장된다고 말한다. 시험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주로 집에서 독서와 음악감상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한



다. 시험에서 지는 날은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바둑판과 계속 씨름을 한다는 열성적인 면도 보였다.

친구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지만 김군의 경우 통장에 들어있는 대국료를 찾

아 쓰면 된다. 그런 아들을 대견해 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훌륭하게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과 오래 떨어져 지내며 자신의 할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습관되어 있다고 한다.

“O.T를 갔다왔는데 짧은 기간동안 동기들과 선배님들이 잘 대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서로를 단합도 잘되고 술도 엄청 잘 마셔요.” 대학이라는 분위기를 조금은 알 것 같았던 김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두는 바둑기사가 되어 훌륭한 경희인이 되고 싶어요”라는 자신의 목표를 말했다.

(김동혁 기자)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출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희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

(’96.12.10 - ’97.2.4)

△김병진(연구처장, 2차분) 1백50만원
△정원재(의예과 3년재학) 1백만원
△정원구(성악과, 이태리 유학중) 50만원
△장진태(언어교육연구원) 1백20만원
△장홍자(정의 10회, 한국화학회이사장) 20만원
△윤준근(법학 6회, 반도명동대표) 5백만원

△이승일(언어교육연구원 과장) 2백만원
△유정철(문리대, 생물학과교수) 2백만원
△김우순(총무과) 60만원
△변영주(교육지원체제센터) 50만원
△권은정(학생처 장학복지과) 96만원
△은난순(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30만원
△김기복(총무과) 50만원
△하병준(자연대, 물리학과교수) 5백만원
△임성현(서울은행근무, 외국어대 불어불문 88학번) 16,700원씩 영구월납, 자동이체

朔風

유행과 개성은 서로 조화될 수 없다. 남들과 차별화되기 싫어서, 혹은 뒤떨어지기 싫어서 집단과 동일한 의복이나 차림새 등을 갖추는 것이 유행이라면 개성은 그 반대로 주변 집단과 별화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의 젊은이들을 가리켜 개성이 강한 세대니 뭐가 좋아하는 세대니 평하는 소리를 듣는다. 실제 학생들을 보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자유방함과 「제멋대로」에 가까운 정도의 사고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과거에는 「소풍종대랑」이라고 해서 생산자가 만들어 내는대로의 소비가 이뤄졌지만 얼마 전부터는 「다품종 소량」 시대로 접어

든 까닭에 자기만의 독특한 추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아니면 순서가 뒤바뀐 것인지도).

개성이란 확실히 멋있고 유익한 것이다. 어쩌면 개성은 젊은 세대가 아니면 누리기 힘든, 그들만의 특권이 라고도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동세대에서 이탈하는 용기는 쉽게 생기지 않는 법이다. 개성은 또한 창조 또는 선구로 이어지는 좋은 예비단계이기도 하다. 예전엔 서태지와 아이들이 입었던 의상은 분명 개성추구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이 의상이 유행으로 이어졌음을 볼 때 「선구자」라구 이름붙일 수 있는 것이다. 남들과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서야 어디 창조와 창조가 나올 것이고 젊은이들 사이에

더 이상 '나'는 없다

서 창작이 나오지 않아서야 그 사회의 발전이 있겠는가.

그런데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요즘의 젊은이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개성을 추구하는 세대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경우가 많아 적이 안쓰럽기도 하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상의를 허리에 붙잡아매는 패션이 대유행을 했었다. 언젠가 가족과 함께 동구장에 갔을 때의 기억이다. 여학생 3명이 나란히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옷을 허리에 묶은 차림으로 들어와서는 옆에 앉은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던 적이 있다. 요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옆에서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크게 나는 경우가 있

는데 돌아보면 엉악없이 젊은이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하나같이 흰색에 2000CC급 중형차다. 이밖에도 예는 수없이 많다. 한 겨울에도 앙고라 반팔 스웨터라든지, 에비타형 머리 묶음이라든지 등등.

유행을 따르면서 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개성파라고 자처하면서, 뒤질세라 유행을 쫓아가는 것은 동로와 차별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나약한 심리의 표출이나 다름없다. 물론 유행을 따른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몰개성인 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진정한 개성을 지녔다고 느낄 수 있는 젊은이들을 보다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宋子)

번잡한 건 싫어

그래서 난 영풍이야!



대학교재, 전문서적은 물론 문구류, CD,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도시 생활인을 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대형문구점, 대형음반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벤트홀, 베이방, 휴식공간까지 갖춘 완벽한 복합문화공간 영풍문고-지하철 종각역에서 나오시면 바로 영풍문고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 전문서적에서 CD, 생일 선물까지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매장이 넓어 여유있고 쾌적합니다.
- 효율적인 매장 구성으로 책 찾기가 쉽습니다.
- 스낵코너, 이벤트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젊음의 복합문화공간

영풍문고

영풍문고 999-5500
분점 0343-88 1161-3
부점 032-964 0314-6